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 철회하라”

전북교총·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 도내 7개 단체 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동일금액 지원 촉구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도내 7개 단체는 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공·사립 유치원 차별 예산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아 1명당 19만2,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명목의 예산 222억1,2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도내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 300여명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앞에 모여 ‘교육청의 차별예산 반대’, ‘사립유치원 편차 지원 반대’ 집회를 갖고 공·사립간 차별지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서 전북교총 오준영 정책위원장과 윤이라 정책위원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전북교총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학부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협의회, 유아교육 행정협의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7개 단체가 함께 공·사립유치원의 차별예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전북교총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 발표 이후 전북교총은 공·사립 유치원의 균

형 발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도내 아동 3만3,000명 중 1만1,000명이 사립 유치원에, 나머지는 공립 등 다른 기관에 다니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에만 편중된 예산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종 회장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공립유치원 원아에게 1인당 월15만 원,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1인당 월35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전북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만 19만1천원을 더 지원하려 한다”면서 “이것은 공립유치원 원아와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고 공립 패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사립유치원에서 원아에게 제대로 쓰일지도 의문”이라면서 “사립유치원의 공립 법안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현실 파악 및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들이 많다”면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예산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도내 7개 단체는 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공·사립유치원 차별 예산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립유치원 안다니는 아이, 왜 차별받아야 하나요?’

전교조 전북지부 “공립·어린이집 교사 가능성 커 전북형 유아교육수당 형태로 동등 지원이 바람직” 공립유치원 확대·시설 환경 개선 등도 덧붙여

전교조 전북지부는 6일 ‘사립유치원 안 다니는 우리 아이, 왜 차별받아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날 전북지부 논평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사립유치원을 편중 지원해줘야 하는 전북교육감에게 방향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당시 13만15,000원이던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액에 예산을 더 상향해 19만1,000원으로 본 예산에 제출,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관련주체들과의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올해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계획이 발표되자 사립유치원들이 경쟁적으로 내년도 학급을 늘리고 특성화활동비 등 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면서 “이에 따라 공립은 큰 위기에 놓였다. 상대적으로 시설 환경이 열악한 공립병설유치원은 폐원이 속출할 전망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소관이 지자체라는 이유로 지원비가 8만원만

책정돼 결국 사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1인당 10만원이 넘는 차별이 생기게 된다”면서 “유아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온 어린이집도 교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북교육청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지자체나 도의회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모양”이라면서,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졸속으로 수립된 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저출생·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육아 학부모를 구분하지 않고 ‘전북형 유아교육수당’ 형태로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만 3~5세 유아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북지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지원을 틀타 특성과 프로그램을 늘려 이윤 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럴 경우 유아교

육 무상화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립유치원의 배만 불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이들은 “학급 당 유아 수가 많을수록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 그런데 사립은 공립보다 학급 당 유아수가 훨씬 많고, 20명 상한 정책에서도 제외돼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급여 체제도 다르고 근무 조건과 신분 보장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비용 지원이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회계 투명성 확보와 조직 민주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립유치원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유치원까지 통학 차량을 확충·운영해야 한다”면서 “오래된 공립유치원의 시설 환경 개선 사업도 필요하다. 저녁 돌봄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일반행정 업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지부는 이날 오후 5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전북지역 유치원 교사들과 함께 공·사립 유치원의 동일한 지원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정은성 기자

교원 전문가가 적극 미래학교 전환 지원

그린스마트스쿨 교육과정 연계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일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그린스마트스쿨 교육과정 연계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연계 현장지원단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나 공간혁신, 고교학점제 등의 사업을 경험한 교원 전문가로 구성됐다.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구성원에게 사전기획의 중요성과 절차, 내용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통해 미래학교 전환을 지원하고, 미래학교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교육과정 연계 현장지원단 대상학교 지원 방법 협의와, 그린스마트스쿨 사전기획 요령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교육을 통해 현장지원단은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학교 사용자의 공감대 형성, 사용자 참여 방법 안내, 건축전문가와의 협업 방법 등의 내용을 학교 사용자에게 전함으로써 학교의 사업 추진 의지를 높이고 업무 부담은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전기획전문가 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의 미래학교 전환을 위한 교육 비전 및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육 공간 재구조화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 그룹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과정 연계 현장지원단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에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서 “미래 교육과정과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학교 공간 조성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포스트 코로나시대 고등교육 발전 방안 모색

한·중대학 총장포럼, 오늘 전북에서 온·오프라인 개최 한국 측 7개 대학·중국 측 12개 대학 총장 발표·토론

제13회 한중 대학 총장포럼이 7일 전북대학교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개최된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주최로 열리는 이번 한중대학 총장포럼에는 한국 26개 대학과, 중국 21개 대학 등 모두 47개 대학 총장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전라북도, 주한중국대사관 등도 함께한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한중대학 협력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혁신의 방향과 과제’ 등 두 가지 주제로 한국 측 7개 대학·중국 측 12개 대학 총장 및 부총장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대학들의 학술 및 인적 교류 등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그간 다녀왔던

네트워크가 약해진 시점에 이번 포럼이 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이 대학교육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통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한편, 현재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숙제를 역시 좋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동원 총장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양국 대학들이 우의를 다지고,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양국 총장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중대학 총장포럼이 단순한 주제발표의 장을 넘어 한중 대학 간의 우의를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의 ‘지음(知音)’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대학-지자체-기관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전주대, 합동 포럼 개최 거점센터 설립 초석 마련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5일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학·지자체·기관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북도청 교육협력추진단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전라북도에서 최적화 된 도민친화형 고등평생교육체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박진배 총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 평생교육 수요자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 및 고등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은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와 전주대의 협력이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져 고무적이며, 앞으로 도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지는 발표와 토론에서는 도민들



전주대학교는 지난 5일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학·지자체·기관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이 될 ‘시민대학’과 고등평생교육의 거점이 될 ‘전라북도고등평생교육거점센터’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수현 평생교육팀장은 “지자체-대학의 평생교육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협력의 시작으로 ‘시민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이범수 대학평생교육실장은 고등평생

교육 거점센터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고등평생교육의 거점이 될 ‘전라북도고등평생교육거점센터’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수현 평생교육팀장은 “지자체-대학의 평생교육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협력의 시작으로 ‘시민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이범수 대학평생교육실장은 고등평생



전북대 창업보육 입주기업 3곳 창업기술혁신대전서 수상받아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주)엔티와 (주)리워드가 최근 열린 2022년 창업기술혁신대전에서 지역 창업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과 군산시장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6일 전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 희망전북 창업보육센터 한지원 매니저와 입주기업인 (주)인인더스가 창업기업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전주시장상을 받았다.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주)엔티는 축산 악취 물질 측정 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 개발해 현재 각 지역 지자체와 협업체 악취 진단뿐 아니라 담뱃냄을 이용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9명의 직원과 함께 악취 저감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또한 (주)리워드는 풍력 발전 블레이드 유지관리 기술의 국산화 도입으로 발전사의 가동 효율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블레이드 제조경험과 창의적 기술개발로 설립한지 2년 만에 매출 15억, 고용 20명을 달성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인인더스는 철강 업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거래 결과를 매칭해주는 AI 기반의 실시간 물량 산출 시스템을 도입한 철강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2019년 7월 창업 첫해 6개월간 매출 25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기준 매출 84억 원의 성과를 냈다. 올해 전주 지역에서 3명의 신규 채용을 하기도 했다.

관내구 창업지원단장은 “지역과 대학, 창업 유망기업이 상호 협력해 도내에서 탄탄한 인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내일 고 1~2학년

담임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 연계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2023학년도 이후의 교육 및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연계 진학지도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부장교사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입 담당 장학사의 2024학년도 대입을 위한 전북교육청 대입 프로그램 안내와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사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이해’로 진행되는 이날 연수는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년도 주요 계획으로 시작된다.

이와 오창민(청주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주제로 대입전형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평가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도교육청은 학생부 축소로 인한 대입전형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설명하고,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의 대입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진로진학담당 강세웅 장학사는 “대입 진학지도에 위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수능이 끝난 지금, 학생들에게 선택형 교육과정 디자인을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이 연수가 교육과정을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에게 작은 지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